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1.8~2017.11.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스스로 강해지길 게을리하지 마라”

자강

송석구 지음 | 한스컨텐츠 펴냄 | 1만 5천원





동료에게 보낸 〈벽운편지〉 글 묶어
현자들의 책서 좋은 문구 발췌 소개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天行健, 君子以自强不息(천행건 군자이자강불식)〉에서 비롯됐다. 의미는 하늘의 운행은 건실하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쉬지 않는다는 말이다.

실제로 자강하는 사람은 건실한 천체의 운행을 본받아 더 강해지기 위해서 힘써 스스로 노력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삿된 욕망을 이겨내고 어제보다 더 강해진,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어 독립적인 삶을 개척해나가는 것이다. 즉,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강해지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자가 바로 군자다.

2014년 7월말, 동국대 교수와 총장을 지낸 저자 송석구 삼성꿈 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은 취임 후 매주 월요일마다 〈벽운편지〉란 이름으로 젊은 동료들에게 편지글을 보냈다. 위 내용과 같이 동서고금 현자들의 책에서 좋은 문구를 발췌한 뒤 저자의 생각을 부연해 주석을 달아 직원들과의 회의뒤에 들려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 못한 직원들도 언제든 접할 수 있도록 삼성꿈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벽운의 편지〉란 이름으로 매주 기록을 올렸다. 이번 책 〈자강〉은 바로 이 글들을 한데 모아 묶은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수년간 쌓인 이 편지글들을 통해 내가 가장 말하고 싶던 내용은 삶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라며 “물론 우리가 없이는 나도 없다는 메시지도 빠뜨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편지글 내용은 현자들의 주옥같은 교훈을 쉽게 풀어서 들려준다. 이 모두가 행복, 자기계발, 수양, 근신, 인간관계 등의 영역서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주는 촌철살인의 메시지들이다. 책 제목 ‘자강’ 역시 주역의 ‘자강불식(自强不息)’서 따왔다.

저자에 따르면 자강은 스스로 독립적인 힘을 갖고 매사에 임한다는 말로도 쓰이며, 그러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말로도 사용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강해지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조언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자강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느 좋은 때를 기약해 오늘 나의 허물을 바로 잡기를 미루지 말고, 어느 먼 미래를 위해 오늘 행복해지기를 미루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 스스로 길이 되어가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강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책은 크게 4부에 걸쳐 88편의 주제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지기〉, 2부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3부는 〈스스로 지혜롭게 깨어있기〉, 4부는 〈소중한 인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등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송석구 이사장**은?

충남 대전 출생으로 동국대 · 동덕여대 · 가천의대 총장,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동국대서 철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평생 교육계에 종사했다. 교단에서는 율곡을 비롯한 한국철학을 주로 강의했고, 율곡에 관한 다수의 저술을 발표한, 국내 대표적인 율곡 전문가다. 율곡학회가 제정한 ‘제2회 율곡학술대상’(2000년)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동안 〈불교와 유교〉 〈한국의 유불사상〉 〈율곡의 철학사상 연구〉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해왔다.

책속의 밑줄 긋기

▲“지금 이 순간은 생에 단 한 번의 시간이며, 지금 이 만남은 생에 단 한 번의 인연이다. 이것이 바로 일기일회이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삶이란 정말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순간순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

책에 담긴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 이런 것이다. 삶을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을 두려워한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이를 구체화시킨 것이 장자의 〈남화경(南華經)〉인데 그 첫 장의 내용이 ‘소요유(逍遙遊)’이다. 이는 바라는 것 없이 노닌다는 뜻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연과 일치가 돼서 노는 것이다. 장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이야기하면서 소요유를 시작한다.”

▲“인격의 완성이란 대체로 슬기로움과 어짐과 용기, ‘지인용(知仁勇)’ 세 가지의 덕성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어떤 때에도 통하는 세 가지 덕목이라 하여 ‘삼달덕(三達德)’이라고도 부른다. 이와 관련해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왈 지자불혹(子曰知者不惑)하고 인자불우(仁者不憂)하니 용자불구(勇者不懼)라.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업이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즉, 고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업은 곧 무명(無明)이다. 무명은 밝지 못한 혼란의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선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고요한 생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이 곧 지혜이다.”

법멸 암흑기 부른 ‘대공의 난’ 소설로 최초 조명

대공의 난

정의성 지음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 2만 2천원



불법이 꽃피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의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 소설은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이 책은 삼국유사의 불교관을 토대로 삼국사기, 신당서, 구당서, 책부원귀, 제왕운기, 동국여지승람, 경상도지리지, 화랑세기 등등의 사료에 근거해 쓰였다. 특히 소설에 나오는 불교용어를 포함한 신라시대 당시의 용어와 배경을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저자는 “소설 본연의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를 방해할 여지가 있다. 가볍고 재미나게 읽으려는 독자들에게는 사족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그 픽션의 박진감을 느끼기 위해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본다. 충담이 기파의 가슴서 천을 들어내자, 벌어진 기파의 상처 사이사이로 피가 다시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다. 스님은 곱게 빻아진 뼛가루를 숟가락으로 떠서 기파의 상처 속에 꼼꼼히 뿌려 넣었다. 그러자 뼛가루가 상처에 녹아들면서 신기하게 피가 멎기 시작했다.

“저는 출가 전 어린 시절에 사냥을 좋아해서 무수히 많은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또 제가 쏜 화살에 상처 입은 짐승을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가지고 노는 잔인한 행동도 즐겨 했지요… 추수가 끝난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냥을 나가는데 논둑 가에 있는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마구 울어대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개구리를 모조리 잡아 버드나무가지에 꿰어버렸지요. 서른 마리쯤 되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꿰어져 버둥거리는 개구리들을 가지고 놀다가 싫증이 나서 그대로 연못 속에 던져버리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을 때, 저는 사냥을 하러 다시 그 논둑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또다시 개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예전에 장난쳤던 개구리들이 생각나서 연못에 가보니… 글쎄, 개구리 서른 마리가 버드나무가지에 꿰인 채 그때까지 살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광경은…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치기어린 장난으로 인해 그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지냈을 개구리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제 자신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공이 순식간에 몸을 밀어 넣으며 소도로 융의 검을 내리누르는 동시에 머리위에 든 대도를 내려베었다. 융이 살짝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대도가 아슬아슬하게 허공을 갈랐다. 대공은 그치지 않고 전진하며 쌍도를 연속으로 뻗어 융의 몸통을 찔러 들어갔다. 하지만 융이 그때마다 뒤로 물러나며 다막검을 중심에 놓고, 들어오는 칼날을 살짝 살짝 옆으로 걷어내는 바람에, 대공의 공격은 매번 손가락 한마디 정도 좌우로 빗나가고 말았다. 대공이 다시 몸을 밀어 넣으며 대도로 융의 목을 찔러 들어가는 순간, 융의 다막검이 대공의 대도를 비비듯 스치면서 중심을 빼앗아 비껴내고 대공의 목을 되찔러 들어갔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반격에 화들짝 놀란 대공이 황급히 오른쪽으로 몸을 비틀어 가까스로 칼날을 피했으나 몸의 균형이 흐트러져 버렸다.

만월은 말을 멈추고서 땅에 발을 디뎠다. 그러고는 강둑에 앉아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기파도 그 옆에 앉아 만월의 시선을 따라 흐르는 강물을 응시했다. 강물은 누가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석양을 받아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고, 간혹 물고기가 퐁당 튀어 올랐다. 한동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강물만을 응시하던 만월은 가만히 기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둘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문두루비법은 불력이 대단한 고승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펼쳤다간 목숨을 잃게 되어 있어. 언덕을 만들려면 다른 땅의 흙을 퍼 옮겨야 하듯이, 비법이 시전되면 시전자의 법력이 빠른 속도로 소모되게 되어있느니라. 일단 비법이 시작되면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을뿐더러, 법력이 바닥나면 계속해서 생명력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지. 그래서 불력이 대단히 충만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쪼그라들어 죽게 되느니라. 사조께서는 세월이 지날수록 승려들의 법력이 점차 약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당신 이후로 비법을 감당해낼 만한 승려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걸 염려하셨느니라.”

불교TV 대표이사 석성우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한다”며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여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밝은사람들 총서 1-12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A5양장/396쪽/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A5양장/504쪽/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A5양장/396쪽/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A5양장/424쪽/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A5양장/416쪽/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A5양장/348쪽/18,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A5양장/300쪽/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A5양장/326쪽/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A5양장/388쪽/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A5양장/376쪽/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A5양장/376쪽/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학술연찬회
주제: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일시: 11월 18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권석만 외 집필/신국판양장/416쪽/22,000원

물질적 소유는 행복의 충분조건인가?

물신주의와 배금주의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소유는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열쇠인가? 초기불교와 선불교, 서양철학, 경제학, 심리학에서 바라본 소유의 본질과 전개,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한 성찰!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